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류·유통업 CSO 간담회 개최

-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대책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당부
- 6월 15일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6월 2일(화) 14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류 및 유통업 최고안전책임자(CSO)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조함에 따라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5.29)에 이어서 폭염에 취약한 물류·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CJ대한통운, 한진 등 6대 물류사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4대 유통사의 CSO들이 각 사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실천방안을 발표하였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여름철에 제기되었던 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류상의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특히, 일부 물류센터의 에어컨 앞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하던 문제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옥외 취약 노동자 보호 조치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교대 인력 확충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해 법제화('25.7.17.)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온열질환(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물류 및 유통업 사업장에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류현철 본부장은 “오는 6월 15일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 집중감독을 물류·유통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늘 물류·유통업에서 발표한 실행계획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취약한 주요 업종인 조선업(6.5.)과 항공 및 항만업(6.9.)에 대해서도 폭염 대비 업종별 CSO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현장의 폭염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붙임 1. 폭염 대비 물류·유통업 CSO 간담회 개요  
 2. 본부장 인사 말씀  
 3.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과 장	신백우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현건 (044-202-8891) 한진우 (044-202-8895)



## 붙임 1

## 폭염 대비 물류·유통업 CSO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일시) '26. 6. 2.(화) 14:00 ~ 15:00
- (장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B102호  
\* 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지하1층(서울역 10번 출구)

### □ 참석자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보건보상정책관 등
- (물류업) 6대 물류사\* CSO, 한국통합물류협회  
\*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쿠팡CFS, 쿠팡CLS
- (유통업) 4대 유통사\* CSO,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 □ 주요 내용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설명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실천방안 발표\* 및 논의  
\* CJ대한통운, 한진, 이마트, 롯데마트

### □ 세부 일정

\* 전체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인사말씀	본부장
14:05~14:15	10'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설명	직업건강증진팀장
14:15~14:35	20'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실천방안 발표	4개사
14:35~14:55	20' · 5대 기본수칙 등 실천방안 논의	참석자 전원
14:55~15:00	5' · 마무리 말씀 및 단체 촬영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현철입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고안전책임자(CSO)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5월 중순에 일부 지역의 최고온도가 34℃를 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폭염에 따른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강조하시는 만큼,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와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기업”으로서  
 이번 간담회에서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소중한 대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이행방안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물류사업장에서 실시간 체감온도 관제 시스템,  
 휴식 시간 기록 앱, 차폐식 냉방설비와

유통사업장에서 LED 체감온도 표지판,  
 휴게시설과 보냉장구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CSO 여러분, 서류상의 훌륭한 대책이 현장의 온도를 스스로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앞서 건설업 CEO 간담회 자리에서 강력히 주문하셨듯,

"안전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안전 앞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에 따른 손실과 사회적 지탄은 예방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합니다.

우리는 작년 여름의 뼈아픈 지적들을 겸허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류센터 에어컨 앞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휴식을 통제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분류장에서 휴식을 부여하였더니, 결국은 택배기사들의 가장 뜨거운 오후 시간대 야외 배송 시간만 늘어났다는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옥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고까지. 모두 제도는 있었으나 현장의 한계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들입니다.

이에 오늘 참석하신 CSO분들께 다음 세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진짜 체감온도' 측정과 실질적 작업중지의 이행입니다. 노동자가 실제 땀 흘려 일하는 밀집 구역의 온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33도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 부여,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과 물량 압박을 줄이고 배송 마감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옥외 취약 구역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밀착 관리입니다. 유통사의 주차장 및 파지장, 물류사의 상하차 도크와 야외 대기장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중지 및 교대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근무 형태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과 책임 경영입니다.

6월 15일부터는 전국 지방관서를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강력히 감독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출하고 발표한 내용이 현장과 다르거나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노동부는 “안전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다”라는 확고한 일념으로 국민들께서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터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모국어 번역본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체감온도 계산기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 물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냉방장치



- ✓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공공기관 자율이용허락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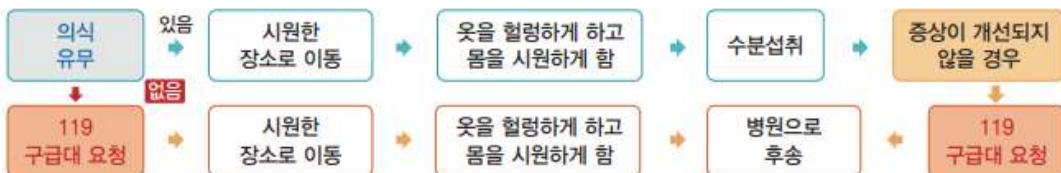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 ▶ 온열질환 증상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 ▶ 밀폐공간은 '질식사 사망 위험공간'입니다. 폭염 시 매우 위험합니다.

- ✔ 밀폐공간(탱크·저장용기의 내부, 맨홀 등)은 기온 상승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입니다.

반드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② 작업전·작업중 지속적인 환기
- ③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 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② 측정결과 기록·보존 ③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④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교육 강조